

설기현 “호주는 내가 깬다” 이동국 <올드보이>

<노장 워어>

<올드보이>

축구국가대표팀 오늘 밤 8시 평가전

21살 팔팔 끓는 젊은 혈기로 호주의 골 그물을 흔들었던 설기현(30·풀럼)과 이동국(30·전북)이 이제 축구대표팀의 '올드보이'가 돼 '어게인 2000년'을 준비한다.

지난 2000년 10월 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스타디움,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축구대표팀은 호주와 'LG 컵 두바이 4개국 초청대회' 2차전을 펼쳤고, 전반에만 두 골을 내주면서 1-2로 끌려가고 있었다.

허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노정운과 이동국을 투입했고, 노정운이 투입 3분 만에 동점골을 넣자 선발로 나왔던 설기현이 후반 19분 헤딩으로 역전 결승골을 터트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한국은 후반 45분 이동국의 페널티킥 쐐기골이 터지며 4-2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지난 1997년과 1998년 각각 한 차례씩 호주와 맞붙어 2연패를 당했던 아픔을 설욕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8강 진출 실패 후 사의를 표명했던 허 감독은 축구협회의 재신임을 받고 다시 나선 국제대회에서 첫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르고 나서 역전의 용사들이 또 한 번 뭉쳐서 오는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호주와 평가전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역전승의 기쁜 추억을 간직한 허 감독은 다시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고, 세대교체의 주역이었던 이동국과 설기현은 노장 공격

수로 '월드컵 승선'의 기회를 타진하고 있다.

누구보다 호주와 평가전이 기다려지는 선수는 이동국과 설기현이다. 허 감독은 '노장의 귀중한 경험'을 강조했다. 이에 맞춰 지난달 이동국의 발탁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설기현과 김남일(빗셀 고베) 등을 대표팀에 합류시켰다.

이동국은 2007년 아시안컵 이후 대표팀과 인연을 접었다가 올해 K-리그(21경기 16골)에서 보여준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달 2년여 만에 대표팀에 재승선했고, 설기현 역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연합뉴스



역시 한국 양궁

4일 울산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 예선 90m에서 나란히 세계신기록을 세운 오진혁(오른쪽)과 임동현이 과녁을 확인한 뒤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양궁 오진혁·임동현 세계新 명종

세계선수권 예선 90m 각각 342, 338점 1, 2위 차지

한국 양궁 남자대표팀의 오진혁과 임동현이 나란히 세계신기록을 명종시켰다.

오진혁(봉수산호소빙)과 임동현(청주시청)은 4일 울산 문수양궁장에서 계속된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 대회 나홀로 남자 리커브 개인전 예선 90m 경기에서 각각 342점과 338점을 쏘아 1, 2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의 장용호가 지난 2003년 뉴욕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운 337점을 각각 5점과 1점씩 늘린 기록이다. 함께 출전한 이창환(두산중공업)은 329점을 기록해 3위를 달리고 있다. 남자 리커브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단체전 3개 대회 연속 석권을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2타점 적시타

4번 지명 타자로 출전한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극적인 2타점 적시타를 때렸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방문경기에서 모처럼 지명타자로 나서 4타수 1안타 2타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추신수는 1-3으로 끌려가던 8회초 2사 1,2루에서 대만 출신 왼손투수 니푸더로부터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희대의 동점 우월 2루타를 때렸다. /연합뉴스

조선대 이 성 높이뛰기 올시즌 3관왕

전국대학육상경기 또 1위 ... 조선대 금 4은 1 획득

조선대 육상부가 제63회 전국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역주를 펼쳤다.

조선대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남대부 경기에서 이성(3년·높이뛰기)·박영식(2년·해머던지기)·윤종배(2년·세단뛰기), 여대부 선지인(4년·해머던지기)이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김대엽(1년·장던지기)은 2위를 기록했

다.

4일 열린 높이뛰기 결승에서 이성은 2m 16을 넘어 김재만(창원대·2m10)·김기훈(한국체대·2m05)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성은 이날 우승으로 지난 종합선수권(5월)·전국육상선수권(6월)에 이어 올 대학부 높이뛰기 3관왕의 영예도 안았다.

해머던지기에선 남자부 박영식이 59m98,

여자부 선지인이 51m75를 기록해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박영식은 지난 종합선수권에 이어 올 두번째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3일 열린 세단뛰기에선 윤종배가 15m21을 뛰어 유재혁(부산대·15m13)·김장준(한국체대·14m59)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장던지기에선 김대엽이 69m55를 던져 박원길(인천전문대·70m94)에 이어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5일(토)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대한민국 : 호주)(19 : 50·SBS)
 ▲2009 프로야구<한화 : LG>(16 : 40·KBS n스포츠·Xports) <롯데 : SK>(17 : 00·MBC ESPN) <두산 : KIA>(17 : 00·SBS스포츠)
 6일(일)
 ▲2009 프로야구<히어로즈 : 삼성>(16 : 40·KBS n스포츠·Xports) <두산 : LG>(17 : 00·MBC ESPN) <롯데 : SK>(17 : 00·SBS스포츠)

생활 게시판

환축

- ▲박성기·전복순씨 장남 선우군 김양호·이만순씨 장녀 수진양=12일(토) 오후 3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한강홀), 피로연 6일(일) 낮 12시 삼화식당(구 현대극장 맞은편)
- ▲김태규씨 장남 진(화순 전남대병원)군 양화영(전 광주시의회 사무처 공보담당) 차녀 은미(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양=13일(일) 낮 12시20분 메리어트 웨딩홀 1층.

무음

- ▲임귀임씨 별세 송규현·길남씨 모친 상=발인 6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 ▲박순례씨 별세 김형주·성주·인주·정심·영심씨 모친상=발인 5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 ▲황진순씨 별세 이윤성·송미·향미씨 모친상=발인 5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 ▲이순태씨 별세 명희·숙희·애정씨 부친상=발인 5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김이국씨 별세 주신·주용(전남대 자연과학대 교수)·정옥·숙희씨 부친상=발인 5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김재철(전 재경 화순 향우회·우사 김규식 연구회장)씨 별세=발인 7일(일) 서울 종로구 홍지동 40번지, 장지 : 화순군 화순읍 교리 선영.

대한민국 종합뉴스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 02-3779-8000

RADIO
 종합뉴스
 뉴스전화 : 02-3779-8000

COMET
 뉴스전화 : 02-3779-8000

STV
 뉴스전화 : 02-3779-8000

기독교방송 선교 후원
CBS
 뉴스전화 : 02-3779-8000

060-600-1031